

T트렌드

상다리 휘던 남도 한정식 실리의 시대... 변신 압력

기름진 들녘과 청정한 바다. 아름다운 산이 키워낸 풍부한 먹거리들을 장인의 정성으로 버무려낸 '전라도 한정식'. '뛰어난 맛' '다양한 종류' '푸짐한 양'으로 상징되는 남도(南道)의 대표 음식 '한정식'이 상다리를 가볍게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서민들이 가족단위로 먹기에는 부담이 큰데다, 반찬수가 많은데도 특징은 없는 '그저 그런 먹거리'로 인식되고 최근 '퓨전화 경향'까지 보여 존재의 이유까지 잃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무려 30여 가지가 넘는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많아 음식 쓰레기 양산의 '원흉'으로까지 물리고 있는 것도 변화 모객의 이유 중 하나다.

광주시와 강진군 등 이른바 '맛고을'들은 앞다투어 ▲표준화·계량화된 식단 만들기 ▲반찬 수 줄이기 ▲적당량 음식 제공하기 ▲개별 찬기 사용하기 등 새로운 '한정식 문화' 만들기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시는 9일 전통한정식 표준준비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할 시범업소 모집공고를 냈다. 남도 음식의 전통과 향토성 깎은 전통한정식을 광주의 대표음식으로 관광상품화



표준화 된 '봄철 빛고을 한정식'(1인분 1만5,000원)

서민 부담 크고 음식 쓰레기 많아 계절별 식단·반찬 수 줄이기 확산 일부 '남도음식 명성' 퇴색 우려도

하여 미향 광주의 맛과 명성을 재건하기 위해서다. 시는 오는 16일~5월 4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3개의 전통 음식점을 선정, 자금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6개월여간 '광주 대표 음식 발굴·육성사업' 연구를 통해 표준·계량화된 표준 식단을 마련했

다. 영양학·조리학 교수 7명으로 '광주 대표음식 발굴·육성연구팀'을 구성해 1인분에 1만5천원, 2만5천원 상당의 계절별 표준 식단을 개발, '빛고을 한정식'으로 명명했다.

반찬 종류의 가지 수, 만드는 법도 표준화·계량화했다. '봄철 빛고을 한정식'(2만5천원 기준)의 경우

▲입맛을 돋우는 음식-조개죽·메밀묵무침·계절채소모듬·숙범박·동동주 ▲즐거는 음식-주꾸미회·죽순회·두릅회·칠절판·김부각·삼합·떡갈비·홍어찜·조기조림·삼치구이·꽃게탕·생선전·속전·느타리버섯전·달래무침·취나물·장아찌 ▲끝내는 음식-딸기·식혜·숙절편 순으로 식단을 짜다.

강진군도 올 들어 군내 모범음식점 39곳을 대상으로 ▲반찬 가지 수 줄이기 ▲적당량 음식 제공하기 ▲개별 찬기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강진의 대표적인 한정식집 중 하나인 '종가집'의 경우 20가지가 넘는 반찬을 최근 12개로 줄였다.

하지만 다른 상당수 식당들은 아직 반찬을 줄이지 못하고 고만하고 있다. 자칫 "정 없다"는 소문이 나면 영입이 힘들어 질 수 있어서다. '종가집' 대표 김은주(53)씨는 "강진의 특성을 살린 음식 몇 가지만을 정갈하게 차려냈더니 단골손님들이 좋아하고 쓰레기도 30%가량 줄었다"면서도 "다른 지방에서 푸짐함을 즐기러온 여행객은 서운해 하는 눈치"라고 말했다.

/김주정·채희종기자
jnews@kwangju.co.kr

“학교급식 직영 지원비 받고 위탁급식 하면 사기죄 해당”

대법, 광주 중학교 前 교장 유죄 확정

학교급식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던 뒤 임의로 위탁급식 형태로 바꿨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9일 학교급식 직영 계획을 세웠다 위탁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3억2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광주 J중학교 전 교장 박모(65)씨와 행정실장에 대한 사기죄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급식시설의 재산적 가치가 투입예산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설치된

급식시설이 학교법인 소유로 등재된 만큼 피해자인 국가에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기죄를 기각했다.

박 전 교장은 2000년 11월 학교급식 형태를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문을 교육청에 제출해 3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후 1억2천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모 단체인 전문업체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 예산 전액을 교부받은 혐의로 2003년 2월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교장의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지원금 전액을 급식시설 신축 및 시설물 구입에 사용했고, 2001년 12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감안, 벌금 500만원 혐의 선고된 1심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099) 김장동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636 최대단지!
 ●풍경형 · 호수공원 조망의 최고 단지!
 수원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노숙자 시설 방화 징역 18년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지난해 11월 광주 노숙자 수용시설에 불을 질러 4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사장 건축자재 상습 절도 '덜미'

○자신이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20대가 경찰에 덜미.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해 8월 밤 11시에 광주시 서구 덕흥동 광주하수종말처리 공사장 자재창고 야적장에서 5차례에 걸쳐 시가 7천770만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훔친 박모(27)씨를 9일 절도 등의 혐의로 불장아 조사 중.

○박씨는 공사장 출입구 벽면 4~5m높이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미리 알고 긴 막대기를 이용해 CCTV 촬영 방향을 하를 쪽으로 틀어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모기 퇴치’ 미꾸라지가 나섰다

광주 서구 '유충 없애기' 저수지 등에 대량 방류

100인 이상 사용 규모의 정화조 850개소를 대상으로 유충조사와 더불어 구제사업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찰없는 모기'를 잡으러 미꾸라지가 나섰다.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모기를 유충 단계에서 없애기 위해 광주시 서구가 생각해 낸 방법이다.

서구는 9일부터 관내 정화조와 저수지 등에서 모기의 유충을 찾아내 없애는 '모기 유충 조사 및 구제사업'을 시작했다. '유충조사반'을 편성해 모기의 주요 서식처이자 특별지역으로 관리하는 운천·풍암·만호·전평 저수지, 종죽장, 광주천 등 6곳을 비롯해 관내

서구는 이를 저수지에 각 200마리의 미꾸라지를 풀어 모기 유충을 잡아먹게 한다. 미꾸라지 1마리가 하루에 모기 유충을 500마리까지 잡아먹을 수 있다는 학계 보고를 토대로 한 시도다.

서구는 또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월 2회 이상 운전저수지 등 6곳을 지속적으로 순회 조사해, 유충 수 및 종별 개체 수를 파악하면서 유충 구제제를 살포할 예정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하룻 새 산불 4건...2명 사상

9일 광주·전남에 4건의 산불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에서 발두령을 태우던 손모(86)씨가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불은 인근 야산 90m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5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앞서 낮 12시10분께는 여주시 소라면 덕양삼거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행기 3대와 소방관 등 1천여 명이 투입해 진화를 벌였지만, 잡둑 등 임야 1만5천㎡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다.

오전 11시50분께는光山구 고흥동 연동마을 인근에서 논두렁을 태우던 불길에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임야 30㎡(10평)를 태웠고, 진화작업을 하던 이모(78·光山구 신가동)씨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오광명기자 kroh@kwangju.co.kr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합법 전환' 찬반 투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형택)가 9일 '합법 노조 전환'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현재 법외노조인 전공노 광주본부 측은 오는 11일까지 조합원 2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합법노조(법내노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합법 노조로 전환될 경우 노동 3권(단체교섭·단체 행동·단체결권) 중 단체 행동권을 제약받게 된다. 또 지위·감독 위치(계장급 등)에 있는 6급 공무원들은 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전공노의 장래 묻습니다

결정될 경우, 단체 행동권 등이 제한을 받게 된다.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조합원들이 9일 동구청에서 노조의 '내일'을 결정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투표에서 합법노조 전환이 이뤄질 경우, 단체 행동권 등이 제한을 받게 된다. /위직량기자 jwi@kwangju.co.kr



Kwangju Ilbo



광주일보 창사 55주년을 축하합니다.

큰 나무는 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류에 흔들림 없이 55년을 지켜온 정론, 광주일보—

친절하고 깨끗한 병원
에덴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무암동 822-12(무암동서면 건너편) 정월사 옆
 TEL.(062)260-3000, 267-0555 FAX.(062)260-0550

